

사회복지사들이여, 자성의 기회를 갖자



| 김 현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며칠 전에 하나은행에 다니는 친분이 있는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카드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으니 신청서 4장만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나은행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신문기사와 이에 대한 협회의 성명서, 각종 비난글 등을 접한 상황이기도 해서 동생의 부탁이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그 이후 하나은행 차원에서의 사과와 제휴카드 발급 제안 등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카드발급 신청서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하나은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화가 났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마찬가지로 발끈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하나은행만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들의 사과문, 제휴카드의 제안(사실, 개인적으로 이 제안은 매우 궁색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무언가 찝찝한 것이 분명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3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희망과 함께 절망을 보

게 된다. 지난 2005년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0년 뜨는 주요 유망 직업 분야 안에는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다(※연합뉴스 2005년 8월 31일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문성에 대해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사회, 환경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우리는 배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개별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과 사회복지사 집단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의식과 전문가로서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전문성 획득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개선,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한 노력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협회의 역할이다. 과연 협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

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사회적 행동이 수반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취득과 자격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사회적 인정을 위한 홍보,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이러한 역할들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때에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데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기관에서 혹은 시설에서 이렇게 대우하는데 뭘 바라겠어’ ‘협회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등의 비판과 불평보다는 나 자신부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내가 대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사람 하나하나가 “저 사람은 정말 전문가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